

■ 법률 칼럼

# 목사님들의 영주권 신청: 종교이민 v. 취업 2순위

종교이민의 경우는 청원서(I-36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I-360을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된 이후에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I-360 승인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종교이민과 취업 2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칼럼에서 2순위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거나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 간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 교단의 일원(member)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 2년 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employee)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유급이었으며 또 중간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위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USCIS는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 3)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1)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현황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 자료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 5)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USCIS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2. 교회의 취업 2순위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단체도 사실상 고용주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이민 절차를 거쳐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교 단체가 일반 고용주로서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고용주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Ability to Pay)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 학기·학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어느새 학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관리해서 학기 말, 학년 말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대입 컨설팅 전문 기관 'Admission masters'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달력을 준비하라. 나에게 중요한 모든 이벤트들의 날짜를 기록하라. AP 시험, SAT와 ACT, 그리고 다른 중요한 활동과 임무 등을 적는다.

달력보다 전화나 태블릿PC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종이로 된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날들을 빠짐 없이 챙기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 달력을 방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고, 지금부터 학년이 끝나는 6월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학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학업은 가장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특히 학년 말이 되면 이런 저런 소셜 행사가 많아져서 유혹을 느끼기 쉽다. 물론 고교 생활에서 당연히 이런 재미와 활력도 느껴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추억도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학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학업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일정시간' 공부에 사용하는 것이다. 매일 미루지 않고 공부와 숙제에 똑같은 시간을 쓴다면, 이 같은 습관은 강력한 힘이 된다. 학업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래 학생이 있다면,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세 번째 팁은 교사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학년 말을 위해 학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물어보면 된다. 교사들은 언제나, 주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많은 경우 교사들은 학기 말, 학년 말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학생과 나눌 것이다. 교사에게 내가 학기 말, 학년 말을 잘 준비하고 싶다고 밝히라.

네 번째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활동이나 임무들에 대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노' (No)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의 초대나 소셜 활동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 프롬이나 학년 말 스포츠 벙커 같은 큰 행사들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졸업 파티 같은 작은 행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행사에도 우선 순위를 뒤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달력을 들여다 보면서, 내가 온갖 행사에 참석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마지막 팁은 '밸런스 유지'이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찾는 것은 한 학년을 강력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부만 하느라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수 있다. 정신적으로 피로감,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다. 학업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숨통이 트일 구석은 있어야 한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을 박탈하지 말라.

균형을 맞추면서 나의 임무를 다 해야 정신 건강을 잘 돌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학년 말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스케줄을 꼼꼼히 관리하며, 정신 건강을 꼭 챙기도록 하자.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